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젠밴드 나타샤 타마스카 VP

2011.04.11. 20:42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펜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젠밴드(Genband) 나타샤 타마스카(Natasha Tamaskar) VP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젠밴드는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고, VoIP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10년 전에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시작해 인수합병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왔다. 작년에 노텔이 부도났을 때, 캐리어 VoIP 부서를 인수해 VoIP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다. 기존 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도 1위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이스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곳이다.

글로벌 회사여서, 전세계적으로 고객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SKT가 젠밴드의 주요 고객사다. 개발센터는 중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타 지역에도 개발센터가 구축되어 있다. 전사적으로 3000여명의 직원이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나타샤 타마스카 VP는 "지난 몇 년간 몇 가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기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기술을 IP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컨버전 솔루션이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IMS로 옮겨가는 것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최적화다. 모바일 네트워크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어서,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최근 자사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펜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젠밴드(Genband) 나타샤 타마스카(Natasha Tamaskar) VP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젠밴드는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고, VoIP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10년 전에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시작해 인수합병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왔다. 작년에 노텔이 부도났을 때, 캐리어 VoIP 부서를 인수해 VoIP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다. 기존 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도 1위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이스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곳이다.

글로벌 회사여서, 전세계적으로 고객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SKT가 첼렌저의 주요 고객사다. 개발센터는 중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타 지역에도 개발센터가 구축되어 있다. 전사적으로 3000여명의 직원이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나타샤 타마스카 VP는 "지난 몇 년간 몇 가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기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기술을 IP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컨버전 솔루션이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IMS로 옮겨가는 것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최적화다. 모바일 네트워크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어서,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최근 자사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Q1. (아크로팬) 스마트폰 앱에서 시그널링 트래픽이 가는 서버가 있다면 이 부분 접속을 차단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가?

일단은 시그널링 트래픽은 사이에 나오는 것이다. RNC/BSC와 SGSN 가운데 놓이는 셈이다. 서버는 SGSN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차단할 수 있다.

Q1-1. 한국은 카카오톡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페이스북 문제가 생기면 그거 차단하라고 이야기는 못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차단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자체보다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사진, 인스턴트 메시지, 비디오 등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세분화된 접근이 그래서 필요하다. 한 두개 문제 때문에 전체를 차단하기 보다는, 위치나 지역 문제/특정 앱 등 세분화된 정보에 대해 가시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시켜 차단이 가능하다.

Q2. (아크로팬) IPv6 기반에서 IP 장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악성 시그니처 분석을 위한 투자가 어느 정도이고, 현재 구축된 인력/투자액 등 인프라 규모,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해 달라.

IPv6 솔루션은 IPv6 레디 컨디션이다. 트래픽 시그니처는 이미 파악해 인식하고 있다. 시그니처 DB는 2주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IPv6 시그니처 중 악성 시그니처는 조치 취하고 있다.

일단 R&D에 상당부분 투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DPI 브로드밴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사진과 투자자 모두 중요도를 공감하고 있어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만 투자하는 금액은 밝힐 수 없다. 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총 매출의 30%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mode=view&cate=0303&wd=20110411&ucode=0803030208&page=1&keyfield=&keyword=>